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Analysis in Korean Studies

송민선 (Min-Sun Song)**

목차

- | | |
|-----------------|---------------------|
| 1. 서론 | 3.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 분석 |
| 2. 데이터 수집 및 구조화 | 4. 결론 및 제언 |

초록

한국학은 지역학으로써의 성격과 함께 다른 학문 분야와 복합적으로 얽힌 특성 때문에 학문 분야로서의 정체성 모색을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국내의 출판 자료 현황이나 주요 연구 성과 고찰 등 정성적 내용 분석 위주의 방법에만 진행되어 왔으며, 계량서지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해외 한국학 분야에서 생산된 학술 논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적용해 지식 구조를 도출하고, FGI를 통해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체로 국내 한국학 분야는 인문학 성격을, 해외 한국학 분야는 사회과학 성격을 보이고, 시기적으로는 국내는 고대에서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데 비해 해외는 주로 근현대 시점 연구가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해 국내 및 해외의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를 도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종합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국내외 해외 한국학 분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작업이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외 한국학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비롯해, 통상적으로 한국학에서 기준으로 삼는 시대별, 학문 분야별 관점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ABSTRACT

In Korean Studies, there have been made many studies for finding the identity as the intrinsic academic field, because the Korean studies have complex intertwined characteristics with other fields. However, previous related studies have been mostly focused on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related to the major Korean Studies, the study applying the bibliometric method was not conduc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ntellectual structures about the domestic and overseas Korean studies academic papers applying the bibliometric methods, and to analyze content of intellectual structures by focus group interview (FGI).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intellectual structure in the domestic Korean Studies ha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umanities, and the intellectual structure in the foreign Korean Studies ha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ciences. Also, the domestic Korean Studies encompassed a wide range of period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while the foreign Korean Studies focused on a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e way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draw the intellectual structur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Korean Studies applying the bibliometric method, and then to carry out the comprehensive analysis through FGI with specialists in Korean Studies. However, in order to do more meaningful one-to-one comparison studies about the field of the domestic and foreign Korean Studies, many follow-up co-studies reflecting diverse opinions of many researchers in Korean Studies will be necessary.

키워드: 한국학, 지식 구조, 군집 분석, 계량서지학, 포커스 그룹 인터뷰
Korean Studies, Intellectual Structure, Clustering Analysis, Bibliometrics,
Focus Group Interview (FGI)

* 본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축약·정리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연구원(songser@skku.edu)

논문접수일자: 2015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1월 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125-157,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4.125>)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학(韓國學, Korean Studies)이란, 어떠한 학문인가?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학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때 학문을 지칭하는 용어의 변천사에 대해 많이 언급한다.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 통용되는 ‘한국학’이라는 학문적 기반과 명칭이 정립되기 시작한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99년 1월 9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 논설에서 언급된 ‘본국학(本國學)’이라는 용어를 현대 한국학이 시작된 모태로 꼽는다. 그 이후 ‘본국학’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역사적인 변화와 함께, 포괄하는 연구 대상과 성격 등이 조금씩 바뀌면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조선학(朝鮮學)’, 광복 이후에는 ‘국학(國學)’,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학(韓國學)’이라는 용어로 지속적인 변천을 겪게 된다(김경일 2003; 임현진, 정일준 2012; 전성운 2010; 황패강 1982). 이와 같이 한국학을 지칭하는 용어가 190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옴에 따라, 한국학은 그 연구 대상과 범위가 다양하고도 광범위해졌으며 ‘한국학’에서의 ‘한국’이 의미하는 바도 매우 복잡적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학이 포괄하는 광범위한 학문적 범주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달리,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학 관련 정보 서비스들은 한국 역사에 관한 연구나 고전 문헌,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내용 등 주로 ‘과거’ 시점의 정보 제공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

대내외적으로 대표 한국학 정책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종합정보서비스’ 사이트가 포괄하는 자료 범주도 주로 전통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연구과제의 내용 및 발간하는 출판물의 주제영역 또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국학은 용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광범위한 개념을 비롯해 다른 학문과 융·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특성 때문에, ‘한국학’이라는 명칭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학문적 토대를 다지고 세계 속에서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체성 모색의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학이 학문 분야의 하나로 정착되어 오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방대한 한국학 관련 학술 논문 데이터에 대해, 정량적인 방법을 적용해 분석해 본 연구는 송민선, 고영만(2015)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범세계적으로 확산된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늘어나고, 질적·양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존의 학술자료 제공 서비스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류체계 상에서는 ‘한국학’이라는 분야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에 한국학의 학문적 정체성 모색을 위한 연구들에서 수행되었던 정성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국학의 광범위한 지식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학의 지식 구조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해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축적된 한국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계량

서지학적 방법을 적용해 분석하고 주제나 시대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기존 성과들의 편중 현상 등에 대해 파악해 보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계량서지학 연구 방법은 다양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들에 포함된 저자키워드, 저자명, 참고문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자료들끼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식 구조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해 한국학의 지식 구조를 도출하고, 해당 구조에서 나타나는 분야들에 대한 내용적 특성 분석을 통해 학문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작업은 한국학 분야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방법론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1.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2.1 지식 구조 관련

‘지식 구조’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구자 간의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나 대상 지식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광의의 개념으로 지식 구조를 언급한 학자로는 Farradane(1950)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분류에 대해 정의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지식 구조의 이론이라고 하며, 여기에서의 지식 구조는 “지식의 여러 다른 부분들 사이의 관계(relations between different parts of knowledge)”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광철완(2000)은 인터넷 검색엔진에 사용하는 디렉토리 범주에 대해 인간의 지식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지식 구조를 “인간이 형성하는 개념, 사물 등에 대한 범

주의 형태”라고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한 바 있다. 정영미(1997)는 지식의 개념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조직해 특정한 체계를 구성하는 자체를 지식의 구조라고 보고 있으며, 지식은 절대적인 구조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좀 더 협의의 의미로써 지식 구조에 대해 정의한 Small(1976)은 학술자료에서의 구조적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소통하는 연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의 구조는, 학자들 사이에 소통되는 아이디어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매우 작은 규모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동 등이 모인 결과라고 하였다. 고영만과 송인석(2011)은 연구 문헌의 지식 구조를 반영하는 의미 기반의 지식 조직 체계에 대한 실험적 모형을 제시한 연구에서, 연구 문헌의 지식 구조를 해당 분야 연구자들 간에 합의된 문서 구성 규칙을 지칭하는 ‘문서 구조’와 ‘의미 구조’로 정리하였는데, 의미 구조는 다시 연구 문헌을 구성하는 개념 요소를 지칭하는 ‘개념 구조’와 연구 문헌이 재현하는 연구 성과의 논리 전개와 타당성 검증에 요청되는 요소로 형성되는 ‘논증 구조’로 구분하였다.

지식 구조에 관한 상기의 논의들을 분석해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 범주의 지식이나 정보들 간의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특정 정보 및 지식, 혹은 학문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구조, 또는 각각의 정보와 지식 등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규칙 등에 따라

구성되는 세부적인 구조들의 집합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식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으로 양분해 볼 수 있는데, 분석 대상 분야의 전문가를 상대로 개별, 혹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방법을 이용해 전문가의 지적 판단에 의존해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방법, 혹은 해당 분야의 관련 문헌 등을 가능한 많이 수집해 수록된 내용들을 분류해 정리하는 방법 등은 질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인용문헌 분석 및 연결망 분석과 같은 계량서지학 분석 방법은 일종의 양적인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정희 2011). 계량서지학 방법을 이용해 분석한 연구들은 분석 도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 결과 값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과정이 필요하다. 즉, 데이터 분석 결과가 특정 단어 및 저자명의 군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이면서도 정확한 지식 구조 분석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분석 대상의 특징에 따라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헌정보학을 비롯한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계량서지 분석 방법을 이용한 다양한 지식 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바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저자동시인용분석을 통해 1980년대 정보검색 분야의 지적 구조 변화를 조사한 서은경(1992)의 연구를 비롯해, 국내 문헌정보학 대표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조사해 다차원 축척법, 군집 분석법, 요인 분석 및 교차 분석 방법을 이용해 지적 구조를 분석한 윤구호와 서말숙(2001),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수록 논문에 대해 국회도서관에서 배정한 2,307종의 색인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해 클러스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문헌정보학 발전 과정에 대해 분석한 유영준(2003), 최근 60년간 발표된 국내 문헌정보학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 및 인용된 외국 문헌 주제와 인용시기별 분포, 문헌의 반감기를 밝히고 타 학문과의 관련성을 추적한 오세훈(200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총 4종에 수록된 논문 및 저자 데이터를 수집해, 저자서지결합분석을 통해 지적 구조를 분석한 박지연, 정동열(2013)의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해외의 문헌정보학 분야 관련 연구로는 스페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발간된 출판물을 대상으로 저자동시인용분석을 실시해 지식의 구조와 특수성, 연구 동향의 분포 등을 살핀 Moya Anegón et al.(1998)를 비롯하여 SSCI 정보학 분야 핵심 저널 12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20명의 저자에 대한 저자동시인용 분석을 실시한 White와 McCain(1998), 문헌정보학 분야를 대표하는 5개 저널을 대상으로 2002~2004년에 발간된 약 1,000편의 논문의 어휘와 구문들을 정제·추출하는 과정을 거쳐 클러스터링 분석을 실시한 Janssens et al.(2006), 21종의 문헌정보학 저널에서 출간된 자료를 중심으로 5년 단위로 시기를 나누어 동시인용분석을 실시한 Åström(2007), 정보학 분야의 핵심 저널 12종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의 WoS 데이터를 추출해 저자동시인용분석 및 저자서지결합분석을 실시한 Zhao와 Strotmann(2008)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다른 학문 분야에서 계량서지학 방법을 적용해 지식 구조 분석을 수행한 주요 연구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및 미국의 기록관리 분야 대표 학술지의 핵심 저자군을 선정해 다차원 축척법에 의한 저자지도를 산출해 지적 구조를 확인한 김희정(2005), 한국 언론학 학회의 대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자들을 대상으로 저자들 간의 학문 공동체 형성 배경 및 동시 저자 인용 기법을 통한 논문 인용 패턴 특성을 분석해, 한국 언론학 연구에 대한 지식 생산의 연결망 구조를 파악한 전범수와 한상권(2007), 『한국청소년연구』 및 『청소년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20회 이상 인용빈도가 있는 저자 48명을 대상으로 저자동시인용기법을 적용해 한국 청소년학의 지적구조를 분석한 김민(2009),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의 논문과 저자를 대상 데이터로 추출하여, 저자 프로파일링과 요인분석, 클러스터 분석 기법을 적용한 텍스트 마이닝 방식에 의해 지적 구조를 설계하고 해당 구조에 대해 주거학 분야 연구자와 질적 면담을 실시해 해석을 보완하고 지적 구조 평가를 실시한 이재운 외(2010), 2001~2010년까지 창업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의 제목과 초록으로 구성된 창업학 코퍼스를 구축하여 동시 단어분석 및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창업학의 지식 구조를 분석한 심재후와 최명길(2013), 의료정보학의 지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IEEE ENG MED BIOL 저널에 등재된 논문들의 참고문헌 리스트 및 키워드를 가지고 저자동시인용 분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실시한 허고은과 송민(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1.2.2 한국학 분야 관련

한국학은 한국에 관련된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연구대상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한국학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는 내용도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관련된 연구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한국학의 개념과 포괄하는 학문 분야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학이란 “역사 속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를 알고, 알리고, 세계 역사에 우리 문화의 가치를 심기 위해서 나라 밖에서의 한국학을 돕고, 나라 안에서의 전통 문화의 재구와 창조를 위해서도 바탕이 될 학문의 총체(總體)이다.”라고 정의한 황희영(1978)을 비롯해, 한국학의 개념에 대해 ① 실제의 한국을 인식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서의 한국학, ② 한국에 있어서의 학문이라는 뜻의 한국학, ③ 바람직한 한국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한국학으로 개념을 세분화해 각각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정리하고 분석한 강성위(1980), “한국에 관한 인문·사회·자연과학 각 분야의 통합적 연구로 ‘한국’의 성격을 밝혀낸다”고 한국학을 정의한 황패강(1982), 학문분야로서 한국학을 “한국이라는 지역과 관계된 모든 존재, 현상, 산물, 활동에 관한 학문을 의미한다”고 한 박이문(2006), 한국학의 위상이 21세기 들어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종합학문으로 재인식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학의 용어적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지역별로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을 분석하고, 학문분류적 측면에서도 학제간 융합학문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김승환(2010), 한국학을 세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한 연구에서 한국학을 “민족의 우월성을 부각함으로써 민족의 긍지나 자존에 귀착하기 위한 국수주의적 학문이 아니며, 동

시에 대상에 대한 소개와 인상적 비평이 주가 된 피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한국을 학적 대상으로 타자화(他者化)함으로써 체계성과 엄밀성을 지닌 학문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전성운(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한국학을 “한국에 관한 지식의 체계”로 잠정적으로 정의하며,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온 한국학의 기원을 파헤치고, 근대 주요 연구자별 연구 경향과 내용, 특징 등을 정리하는 연구를 수행한 김경일(2003), 1950-60년대에 출간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 논문들의 게재 편수 및 세부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고 각 내용의 흐름을 범주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근대 시대 한국학에 대한 연구 방향과 특징을 정리한 최기숙(2011)을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연구 동향을 분석·정리하고(김석득 1983; 박영신 1983; 심의림 1990; 오가레크최 1990; 박정신 1999; 함동주 2001; 김운태 2006; 송현호 2012),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관련 커리큘럼을 분석함으로써(이병도 2003; 김종명 2006; 조태린 2013), 앞으로 한국학이 세계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학 관련 교육 과정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한국학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제언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송민선과 고영만(2015)이 2011~2013년 평균 IF 값이 0.5 이상인 14종의 한국학 관련 학술지에 수록된 2004~2013년 발간 학술 논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키워드 동시 출현 빈도에 의한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적용해 국내 한국학 분야를 구성하는 연구 영역 식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2.3 선행연구 분석

계량서지학 방법을 이용한 지식 구조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여러 기법을 이용해 지식 구조 분석 연구가 다수 수행되긴 했으나, 특정 분야의 국내와 해외의 지식 구조를 각각 정리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었다. 또한 실제 분석에 사용한 통계 기법이나 계량서지학적 방법 등이 부각되고, 도출된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한국학 분야에서의 정체성 모색에 관한 연구의 경우, 주로 기존에 이루어진 주요 연구들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한국학 관련 교육 과정들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강하며, 양적 분석에 의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학 분야에서 생산된 국내와 해외 학술 논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량서지학적 방식을 적용해 지식 구조 형태 및 구조를 도출하고, 한국학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이하 FGI)를 실시해 각각의 지식 구조에서 나타나는 국내 및 해외 한국학 분야의 내용적 특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한국학 지식 구조 산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구조화, 한국학 지식 구조에 대한 내용 분석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적용되는 연구방법은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계량서지 분석 방법 및 도출한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위한 FGI로 구성된다(〈표 1〉 참조).

본 연구 과정에서 지식 구조 산출을 위해 적용한 계량서지학적 방법은 논문 저자가 부여한 저자키워드를 대상으로 한 동시출현단어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동시출현단어 분석법을 통해서 연관 키워드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지식 구조의 세부적인 분야별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데이터 수집 범위 및 기준과 관련하여 기준에 참고할 수 있는 한국학 분류 기준 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국내 및 해외 데이터 수집 대상 DB에 수록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최대한 관련 자료가 많이 수집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국내 한국학 데이터는 ‘KCI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 등재된 한국학 관련 국내 학술지 수록 논문’으로, 해외 한국학 데이터는 ‘SSCI(사회과학 분야) 및 A&HCI(인문학 분야)에 등재된 한국 관련 해외 학술지 수록 논문’으로 범위를 각각 한정하였다. 그 외에 저자의 국적

이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 데이터를 제한하는 조건도 가능하지만, KCI 및 WoS의 SSCI와 A&HCI에서 제공되는 연구자 식별 정보의 경우, 누락되거나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고려 대상 기준에서는 제외하였다.

FGI는 서울 모 대학에 소재한 한국학 관련 연구원의 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FGI에 동의한 9명을 대상으로 2그룹을 나누어 2015년 4월 1일, 2일 이틀에 걸쳐 평균 약 110분가량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정한 분야와 관련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전문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FGI인 만큼, 효율적인 인터뷰 진행을 위해 대상자들이 사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질문지와 관련 참고 자료들을 FGI 5일 이전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사전질문지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한 연구 질문의 범주(〈표 2〉 참조)에 맞추어 구성하였으며, 사전질문지에 수록된 내용 외에 연구 데이터 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표 1〉 연구단계 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 단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한국학 지식 구조 산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구조화	•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 수집 • 논문 데이터에 수록된 저자키워드를 대상으로 한 군집화 작업	계량서지 분석
한국학 지식 구조에 대한 내용 분석·정리	• 국내와 해외 지식 구조 군집에 대한 내용 식별의 타당성 분석 • 국내와 해외 지식 구조의 구성적, 내용적 특성 분석	FGI를 통한 내용분석

〈표 2〉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 학술 논문의 지식 구조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가? 2. 국내와 해외의 한국학 분야 학술 논문의 지식 구조에서 보이는 연구 분야의 특징이 무엇인가? 3. 국내 한국학 분야 학술 논문의 지식 구조와 해외 한국학 분야 학술 논문의 지식 구조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FGI 과정에서 세부적인 질문 내용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FGI 내용 분석은 인터뷰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수집된 녹음자료와 해당 녹음자료를 전사한 녹취록을 토대로 시행하였고, 분석된 내용은 각 인터뷰 대상자들이 작성해 보내온 사전질문지의 내용과 상호 비교하여 최종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한편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응답자에 따라 인터뷰 전반-중반-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정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질적 연구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QSR NVivo 10을 이용해 연구자가 자료를 직접 읽어가며 각 질문과 관련해 의미 있는 단어나 구, 문장, 문단에 대해 노드(Node)를 설정해 코딩,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 데이터 수집 및 구조화

2.1 데이터 수집

국내 한국학 분야의 학술논문 데이터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KCI 서비스 및 유료학술논문DB 4종(누리미디어 DBPIA, 한국학술정보 KISS, 교보문고 교보스콜라, 학술교육원 e-Article)을, 해외 한국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는 Thomson Reuters에서 제공하는 WoS의 SSCI 및 A&HCI를 이용하였다.

한국학의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한국과 관련한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논문은 모두 한국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 발간 논문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기술적, 시간적 한계가 있고 한국학을 특정하는 주제 분야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한국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함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에서 구축·제공 중인 KCI 서비스에 등재된 학술지 중 '국학', '한국학', 'Korean Studies' 및 예전부터 한국학 분야 학술지명에 많이 사용되는 한국의 이칭(異稱)인 '대동(大東)', '태동(泰東)', '해동(海東)', '동국(東國)', '조선(朝鮮)', '동방(東方)', '고려(高麗)', '청구(靑丘)', '진단(震壇·震檀)', '단국(檀國)' 키워드를 학술지명에 포함하는 학술지의 수록 논문들로 한정함으로써, 최대한 한국학 관련 자료가 많이 포함되는 동시에 대상 범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비교적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그 중 중복되어 나온 결과값을 제외하고, 한국연구재단 분류표 대부분류를 기준으로 인문학, 사회과학에 속하는 학술지만을 걸러낸 후, 학술지명에 외국의 특정 국가명이나 지역명이 포함된 경우(예: 외국학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미국학논집, 한국태국학회논총 등) 및 원래 의도한 검색어 앞뒤로 다른 단어가 붙거나, 동형의이어로 본래 검색 의도와 다른 영역의 학술지가 결과에 포함되어 나온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예: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한국학교보건학회지, 대한체열진단학회지 등)은 모두 제외하였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총 36종의 한국학과 관련된 학술지 목록을 추린 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표시된 22종의 학술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표 3〉 참조).

〈표 3〉 국내 한국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학술지 선정 목록

No.	학술지명	발행기관	창간연도	발행간기
1	Comparative Korean Studies	국제비교한국학회	1995	연3회
2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8	연2회
3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연2회
4	고조선단군학	고조선단군학회	1999	연2회
5	국학연구	한국국학진흥원	2002	연2회
6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3	연4회
7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1998	연4회
8	대동한문학	대동한문학회(구.교남한문학회)	1988	연2회
9	동국사학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1948	연2회
10	동방학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6	연4회
11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54	연4회
12	동방한문학	동방한문학회	1982	연4회
13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1997	연2회
14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78	연4회
15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1997	연4회
16	진단학보	진단학회	1934	연2회
17	태동고전연구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84	연2회
18	한국학논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3	연4회
19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8	연2회
20	한국학연구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1988	연4회
21	한국학연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9	연4회
22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1998	연3회

※ 2015년 1월 28일 기준, 한국연구재단 KCI(<https://www.kci.go.kr/>) 검색 결과

해외 한국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 수집을 위해 활용한 Thomson Reuters에서 제공하는 WoS의 SSCI 및 A&HCI 역시 KCI와 마찬가지로 ‘한국학’을 특정하는 주제 분야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DB와 달리 ‘한국학(Korean Studies)’과 관련된 키워드를 학술지명에 포함하는 학술지의 종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 한국학 관련 학술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와일드카드 기능을 사용해 ‘Korea*’를 검색어로 하는 주제어 검색 결과 출력되는 학술논문 데이터 전체를 수집 범위로 지정하였다(〈표 4〉 참조).

2.2 데이터 구조화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집된 국내 및 해외 데이터의 출판연도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식 구조를 도출함에 있어 국내와 해외 수집 데이터 중 저자키워드가 수록되기 시작한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출판연도가 공통되는 최대 범위인 1999년부터 2014년 데이터 중 저자키워드가 수록된 논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다.

1999~2014년에 발간된 국내 한국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 중 한국어 저자키워드가 수록

법칙에 근거한 것이다(송민선, 고영만 2015). 이러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정렬한 결과, 국내 한국학 분야 분석 대상 기준은 출현빈도 누적 합계 비율 19.7% 이상, 출현빈도 6회 이상인 구간에 속하는 고유키워드 총 785개(출현 빈도 분포는 6~67회)로, 해외 한국학 분야 분석 대상 기준은 출현빈도 누적 합계 비율 20.1% 이상, 출현빈도는 20회 이상인 구간의 고유키워드 총 219개(출현 빈도 분포는 20~1,083회)로 정리되었다.

이후 고유 키워드에 연계된 논문 데이터를 이용해 동시출현행렬 데이터를 구하고 PASW Statistics(SPSS) 18 소프트웨어를 통해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대상 데이터 간의 유사성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집화 해 주는 방식이기에 본 연구처럼 전체적인 지식 구조의 군집 수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관계수 행렬을 입력데이터로 하여 계층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해 집단 간 연결 방법으로 군집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군집 분석에서 군집의 수는 대체로 군집화 일정표의 유사성 거리 계수값이나 덴드로그램 그래프를 통해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키워드 수가 많아 덴드로그램 그래프를 한 눈에 판단하기 쉽지 않아 군집화 일정표의 유사성 거리 계수값의 상승 정도를 기준으로 군집 수를 결정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국내 및 해외 데이터를 대상으로 각각 계층적 군집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군집 중 일부 군집에 지나치게 많은 저자키워드가 모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1차 군집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된 군집 수로 분석 대상 키워드 수를 나눈 산술평

균 값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값보다 많은 키워드가 모이는 군집들에 대해 1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2차 군집 분석을 수행하고, 2차 군집 분석 결과 또 다시 큰 군집으로 범주화된 군집들에 대해 3차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계층적 군집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부록 1] 및 [부록 2]와 같이 각각 3단계(국내)와 4단계(해외)로 계층화된 국내 및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군집을 얻을 수 있었다.

3.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 분석

계층적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들을 토대로 한국학의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군집 분석 방법을 이용해 구조화한 지식 구조 군집들에 대해 명명 작업을 수행하고, FGI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배포할 질문지와 참고자료들을 작성하였다. 명명 작업의 목적은 임시 코드 값으로 구분한 각 군집들에 포함된 한국학 분야 논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 영역의 연구 내용들을 포함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함이다. 명명 작업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문가와의 협업이나, FGI를 통해 군집 하나하나에 대한 명명 작업을 일일이 진행하기에는 국내 및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구조에 속한 군집의 수가 많아 전체 내용 분석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군집별 저자키워드 및 해당 키워드들과 연계된 학술논문 목록을 토대로 가칭

(假稱)을 부여하고, FGI 과정에서 해당 명칭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가칭을 부여할 때에는 연구자의 의견이나 주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당 군집의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 목록을 활용하여, 해당 군집에 속한 키워드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어로 판단되는 단어 및 문구를 이용하였다. 또한 앞서 군집 분석을 여러 차례 실시해 세분하였음에도 하나의 군집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연구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군집명에 '~및'이나 쉼표(.) 구분, '+' 부호를 이용해 정리하였다([부록 3], [부록 4] 참조).

이후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과 효율적인 FGI 진행을 위해, 가칭을 부여한 군집 분석 자료 및 기초 통계 자료, 각 군집에 속하는 키워드와 연계된 논문 목록 파일, 그리고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혼합해 구성한 사전질문지를 FGI 진행 5일 이전에 참여자들에게 미리 제공하여 명명 작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전체적인 내용 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질문지에는 연구자가 제시한 군집의 가칭이 적절한지 등의 여부를 '네/아니오'로 선택하도록 하고(폐쇄형 질문), 추가적인 개인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개방형 질문) 참여자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또한 FGI 진행 시 각 개인별로 수집된 사전질문지의 답변 외에 보다 심화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질문 내용을 추가하여 사전질문지로 받은 개별 의견들에 대한 해당 그룹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3.1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의 내용 분석

먼저,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로 도출된 각 군집들에 대해 연구자가 부여한 가칭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과 관련하여, 적절하다는 응답이 9명 중 7.52(각 군집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한 수의 평균값)로 나와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군집의 연구 분야를 식별해 주기 위한 명명 작업이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과 관련한 추가 수정 의견의 경우,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나 단어를 조정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성격이 이질적으로 보이는 2개 이상 분야가 한 군집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군집을 세분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군집 명칭에 사용한 지역이나 시간,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한 추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군집 명칭에 대한 사전질문지 답변 작성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사전에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주제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응답자 1-4]과 함께,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에 따라 제시된 군집 명칭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응답자1-1, 응답자2-1, 응답자2-2, 응답자2-3, 응답자2-4]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한국학 연구자들이 학술 자료를 찾을 때 보통 시대적인 구분[응답자1-1, 응답자1-3]과 학문 분야 기준[응답자1-2, 응답자1-3]으로 나뉜 학문 분류 체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자료로 제시된 군집 분석의 내용은 매우 넓은 주제 및 시간 범위를 아우르는[응답자1-1, 응답자1-3] 한

국학 분야 학술 논문에 삽입된 저자키워드를 기초로 하고 있고, 각 군집 안에는 동시출현빈도를 기준으로 한 상관계수 값에 따라 다양한 시간대와 학문 영역을 넘나드는 시대명, 인명, 이론, 사상 등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참여자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 군집 내 포함된 키워드 중 친숙하거나 그렇지 않은 용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응답자2-2, 응답자2-4]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에서 보이는 연구 분야의 특징과 관련해 다른 분야에 비해 중심이 되는 연구 분야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9명 중 7명이 중심 분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1-2, 응답자1-3, 응답자1-4, 응답자2-1, 응답자2-2, 응답자2-4, 응답자2-5]. 구체적인 중심 연구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는 K.C.2(한국 사상 철학)가 흔히 한국학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성리학, 실학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전통 사상과 관련한 개념들이 모여 있고 한국적인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군집이기에 중심 분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응답자1-2, 응답자1-3]과 함께, 특정 군집을 언급하기 보다는 제시된 자료 내에서 중심이 된다고 판단되는 주제어로서 '실학, 산문, 조선 후기, 근대문학, 분단[응답자2-4]', '근대, 한반도, 북한, 경제, 민주화[응답자2-2]'를 중심 분야로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K.C.5.7(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융합적인 성격의 인문학) 군집에 포함되는 키워드 전체가 다른 키워드들에 비해 상위개념어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중심 분야로 생각된다는

의견[응답자2-1]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 제공된 참고자료 외에 실제 학회에서 많이 논의되는 시대가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관련 연구가 중심이 되는 분야로 생각된다는 의견[응답자1-2]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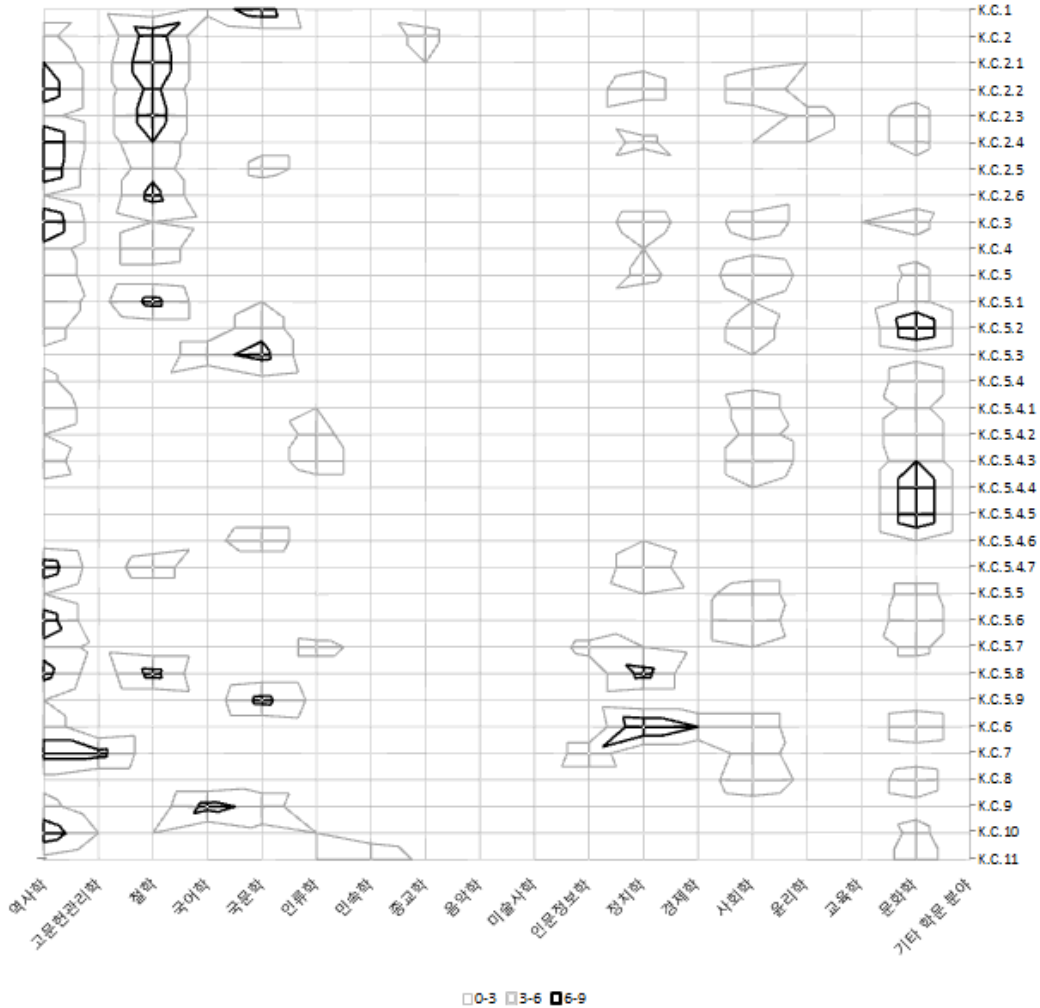
개별적으로 중심이 되는 군집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K.C.2(한국 사상 철학)[응답자1-4, 응답자2-1, 응답자2-5] 및 K.C.2의 하위 군집(K.C.2.1(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사상철학)[응답자1-2], K.C.2.3(주자학 및 예학)[응답자1-2], K.C.2.4(조선시대 성리학과 실학에서 파생된 각종 학파 및 정치 세력 집단과 관련한 사회문화사상)[응답자1-3])과 K.C.5(격변기 및 근현대 한국과 관련한 사회상과 문화, 이데올로기)[응답자1-4, 응답자2-1, 응답자2-5] 및 K.C.5.1(근현대 한국 사회에서 주목하는 철학적, 문학적 담론 및 사상)[응답자1-2]를 선택하였고, 선택 이유로 '해당 군집이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과 사상에 관련된 내용이고[응답자1-2, 응답자1-4], 한국 사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야이며[응답자1-2, 응답자1-3], 축적된 논문 수도 많기 때문이다[응답자2-1, 응답자2-5]'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내에서 중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학문 분야 측면에서는 성리학, 실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 사상 철학과 문학 분야가, 시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선후기에서 근대 시기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단 상황을 반영한 한반도와 북한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경제나 민주화와 관련한 내용이 대체로 국내 한국학 분야 연구자들의 중심 연구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가 학제적 특성(복합주제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9명 중 6명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응답자1-1, 응답자2-1, 응답자2-2, 응답자2-3, 응답자2-4, 응답자2-5]고 답했다. 반면 학제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답한 3명의 경우, 각각 'K.C.2(한국 사상 철학), K.C.5(격변기 및 근현대 한국과 관련한 사회상과 문화, 이데올로기)[응답자1-2]', 'K.C.3(고려~조선 시대 정치, 문화, 외교 활동 + 한자(교육)학)[응답자1-4]', 'K.C.5.7(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융합적인 성격의 인문학)[응답자1-3]'이 학제성이 잘 드러나는 군집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이유로 '해당 군집들이 학제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응답자1-2]', '각각에 포함된 군집에 해당하는 연구들의 대상 시기가 길고 연구 범위가 넓다[응답자1-4]', '지역 및 문명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융합한 학문에서는 다양한 학제를 포괄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응답자1-3]'라고 답변하였다.

학제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단일한 학문 분야의 성격을 가진 군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명 중 4명이 단일한 주제 특성을 보이는 군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응답자1-1, 응답자2-2, 응답자2-3, 응답자2-5]. 학제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일한 주제 영역으로써의 특징을 나타내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1개의 키워드(오구굿)로 구성된 K.C.11(오구굿) 군집이 단일하다는 의견[응답자1-3, 응답자2-1]이 제시되었는데, 실제로 해당 군집에 속하는 7편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그 중 5편이

2007년에 동해안 오구굿을 특집호 주제로 다룬 학술지 수록 논문으로 모여 있었고, 나머지 2편은 각각 2006년, 2008년에 발간되어 오구굿이라는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K.C.11은 상당히 단일한 연구 영역의 특성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단일한 분야 특성을 띠는 군집으로 언급된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하위 군집 구성이 복잡한 K.C.2(한국 사상 철학)이 크게 보면 성리학 관련 주제로 단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응답자1-4], 그리고 K.C.5.7(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융합적인 성격의 인문학) 군집이 인문학 주제로 묶이는 단일한 성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명칭을 좀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응답자2-4]이 있었다. K.C.2 및 K.C.5.7 군집의 경우, 특이하게도 학제적 특성을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단일한 주제 영역으로 판단된다는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제기된 군집이었는데, 이는 학제성과 단일성 정도에 대한 기준이 참여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군집별로 복합학문적 성격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각 군집들에 포함될 수 있는 17개 학문 분야(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세부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및 기타 학문 분야를 복수 선택하도록 해당 군집에 대해 응답자 과반수가 선택한 학문 분야를 정리해 본 결과, <그림 1>과 같이 대체로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는 역사, 철학, 국어학, 국문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 분야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군집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 국내 한국학 분야 군집별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복수 선택 결과

3.2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로 도출된 각 군집들에 대해 연구자가 부여한 가칭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과 관련하여 9명의 답변을 취합한 결과,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8.07)으로 나와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군집의 연구 분야를 식별해 주기 위한 명명 작업이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엇보다도 해외 한국학 지식 구조 분야 군집 명칭은 국내 한국학 지식 구조 군집에 비해 좀 더 시간적 범위가 근현대로 모여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명확한 느낌[응답자1-1]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과 관련한 추가 수정 의견의 경우, 국내 한국학 분야 군집과 마찬가지로 일부 부자연스러운 표현

이나 단어를 조정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답변으로는 국내 군집과 마찬가지로 성격이 이질적으로 보이는 2개 이상 분야가 한 군집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군집을 세분해서 정리하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또한 군집 명칭에 쓰인 단어 중 '이민자'나 '한국인'과 같이 연구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포괄하는 범위가 명확치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응답자1-3, 응답자2-4]이 있었고, 참고 자료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한국학 분야에서 보는 '한국'의 개념은 지리적,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다 입체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응답자1-1] 연구 대상으로서의 '한국'과 관련된 개념들(예: 해외 한국학의 논문에서 언급되는 한국인의 포괄 범위가 한국계 미국인까지인지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한국인인지?)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에서 보이는 연구 분야의 특징과 관련해 특히 중심이 되는 연구 분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전체 응답자 9명 중 5명이 중심 분야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응답자1-2, 응답자1-4, 응답자2-1, 응답자2-4, 응답자2-5]. 구체적인 중심 연구 분야로 생각되는 군집을 적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F.C.1.1.1.2(정치, 경제 윤리 분야 측면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비교), F.C.1.4(한반도 내 對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국가명 '한국'을 주제로 포함하는 다른 분야 연구들도 다수 포함된 군집)), F.C.3.1.2(심리적 불안, 정신 건강, 우울증과 삶의 질)[응답자1-2]', 'F.C.3(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황)[응답자1-4]', 'F.C.1.4(한반

도 내 對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국가명 '한국'을 주제로 포함하는 다른 분야 연구들도 다수 포함된 군집))[응답자2-1]', 'F.C.1(한국 사회의 발전 및 변화, 한반도의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현상)', 'F.C.1.2(한국 금융 및 산업 분야), F.C.1.3(경제 성장), F.C.1.4(한반도 내 對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국가명 '한국'을 주제로 포함하는 다른 분야 연구들도 다수 포함된 군집))[응답자2-5]' 등이 언급되었다. 그 외에 구체적인 군집명을 적시하지 않고 중심 분야에 대한 개별 의견을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반도 분단 상태와 관련한 남북한 관계나 정치 경제에 관한 군집들이 가장 중심인 것 같으며[응답자1-4, 응답자2-4] 그 외에 F.C.1.5(한류) 군집을 포함해 일부 보이는 유교문화권 관련 키워드, 그리고 식민지 문학에 대한 내용도 중심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응답자2-4]이 있었다. 또한 제공된 사전 참고자료와 상관없이 실제 한국학 관련 해외 학회를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북한이나 통일에 관련된 것이거나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해당 주제 영역이 중심 분야가 아닐까라는 의견[응답자2-1, 응답자2-3]도 제기되었다. 본인이 답변한 내용이 중심 분야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각각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전근대 시기가 아닌 현대, 정치 경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응답자1-2]',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응답자2-4]', '논문 출판 비율에 있어 해당 분야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응답자2-5]'이라고 응답하였다.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가 학제적 특성

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9명 전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FGI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반적인 논의를 놓고 보았을 때 많은 참여자가 해외 한국학 관련 중심 분야로 언급한 'F.C.1(한국 사회의 발전 및 변화, 한반도의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현상)' 군집 및 해당 하위 군집들에 포함된 키워드들이 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에 두루 걸쳐 있고[응답자1-2, 응답자1-4, 응답자2-1, 응답자2-3], 시대적으로는 대체로 근대~현대에 몰려[응답자1-1] 있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대체로 중심 분야로 언급된 F.C.1과 해당 하위 군집들의 경우는 근현대 시기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 중심의 복합학문적 성격을 띤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 외 건강 관리나 심리학, 연구방법론 등과 관련된 키워드로 구성된 군집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해당 전공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학제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단일한 군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명 중 5명이 단일한 주제 특성을 보이는 군집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응답자1-3, 응답자2-1, 응답자2-2, 응답자2-3, 응답자2-4], 국내 한국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시된 자료에 근거해서는 단일주제적인 특성을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일한 주제적 특성을 보이는 군집이 있다고 답한 4명의 경우, 각각 'F.C.1.5(한류)[응답자1-1]', 'F.C.1(한국 사회의 발전 및 변화, 한반도의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현상), F.C.1.1.1.2(정치, 경제 윤리 분

야 측면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비교), F.C.1.4(한반도 내 對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국가명 '한국'을 주제어로 포함하는 다른 분야 연구들도 다수 포함된 군집))[응답자1-2]', 'F.C.1.1.1.6(인터넷 정보 및 다양한 계량 정보 분석), F.C.1.2(한국 금융 및 산업 분야)[응답자1-4]', 'F.C.1.4(한반도 내 對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국가명 '한국'을 주제어로 포함하는 다른 분야 연구들도 다수 포함된 군집))[응답자2-5]' 군집을 선택해 답변하였다. F.C.1(한국 사회의 발전 및 변화, 한반도의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현상) 군집의 경우,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에서 분석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학제적 특성이 많이 드러난다는 의견과 함께 단일한 성격을 보인다고 하는 상반되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된 군집이었다.

한편,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군집들이 갖는 학문 영역에 대한 다양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각 군집이 포함될 수 있는 학문 분야를 복수 선택하도록 한 사전 질문에 대해 각 군집별로 5명 이상 과반수가 선택한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2>와 같이 정리한 결과, 대체로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 분야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군집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3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 학술 논문의 지식 구조 차이

앞서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구조에서 보이는 각각의 내용적 특징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

해외 군집의 내용이 훨씬 정리가 잘 되고 구체적인 느낌이 든다[응답자1-1]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7명 중 5명의 응답자가 국내의 경우에는 사회, 문화, 문학 등에 걸쳐진 인문학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많고, 해외의 경우에는 대체로 남북한 관계와 정치 문제에 걸쳐진 사회과학 분야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응답자1-2, 응답자1-3, 응답자2-2, 응답자2-4, 응답자2-5]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한국은 사상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 많고 해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슈와 관련된 연구가 더 많다[응답자1-4]고 하였고, 또 다른 1명은 해외 한국학 지식 구조에 포함되는 일부 군집들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학 분야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응답자2-1]고 답하였다. 그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응답한 4명 중 3명은 국내와 해외 지식 구조 군집을 이루는 학술 논문 데이터에 포함되는 범위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응답[응답자2-1, 응답자2-2, 응답자2-5]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의 학술적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해외의 경우 외교 및 교류 목적으로 한국학을 연구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발굴 및 축적의 목적으로 한국학을 연구하기 때문이다[응답자2-4]'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제시된 자료의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군집 구성 중 F.C.1(한국 사회의 발전 및 변화, 한반도의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현상), F.C.2(한국계 미국인, 한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인의 문화적 변화 현

상 연구, 건강 관리 비교 연구), F.C.4(간호학, 민속학, 문화비교학 등 주로 복합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태도나 생각) 군집은 그래도 한국학 분야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F.C.3(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황), F.C.5(소비자학, 신문방송학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컨조인트 분석), F.C.6(감정, 정서 연구), F.C.7(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요인 분석, 신뢰성, 타당성 측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한국학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응답자2-2, 응답자2-4]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포함하는 군집을 모두 한국학 분야로 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응답자2-1, 응답자2-4]라는 의견과 함께, 한국의 경제학이나 경영학 관련 군집들의 경우도 경제학자나 경영학자의 시선에서 연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학 연구 분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응답자2-3]는 의견도 있었다.

때문에 연구자가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내와 해외 분야를 1대 1로 동일 선 상에 놓고 비교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응답자1-1, 응답자1-3, 응답자2-1, 응답자2-2, 응답자2-4]이 많았다. 그와 관련한 추가 의견으로, 해외 자료의 경우 국내 자료와 달리 Korea로 검색하면 대체로 연구자가 제시한 범위와 수준 정도의 결과물들만 나오기 때문에 [응답자1-1]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의 1대 1 비교 연구를 엄격히 하려면 국내와 해외 자료의 수집 기준이 달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응답자2-4]이지만, 해외 DB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한국학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키워드로 검색해야 한

대[응답자1-1, 응답자2-2, 응답자2-4]는 조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등 한국 역사를 대표하는 시기를 지칭하는 명칭이나 박지원, 정약용 등의 유명한 학자의 인명, 대표적인 문헌명 등의 고유명사로 검색한 결과값들을 모으면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를 포함하는 군집들과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연구 자료가 모일 가능성이 높다[응답자1-1, 응답자2-1, 응답자2-2, 응답자2-4]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한국학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키워드가 무엇인가의 기준이 모호하고, 동일한 한국어 키워드를 나타내는 영문 키워드 표현이 저자에 따라 여러 방식(예: '조선시대'의 경우 Chosun Dynasty, Joseon Dynasty, Choson Dynasty, Chosŏn Dynasty로, '한류'의 경우 Hallyu, Korean Wave로 기재됨)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등의 각종 제약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로 제시된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를 1대 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비판 의견은, 기본적으로 국내 한국학 분야와 해외 한국학 분야의 군집 분석 대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 연구자가 제한한 모집단 기준의 차이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해외 한국학 분야 학술 논문 자료의 경우 국내에 비해 한국학 분야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 범주로 좁히기 위해 검색 DB 종류를 A&HCI와 SSCI만으로 선택해 'Korea*'를 주 제어어로 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검색 조건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해당 DB들에서 포함하고 있는 세부 주제 분야들을 보면 약학(MEDICINE GENERAL INTERNAL), 임

상신경학(CLINICAL NEUROLOGY), 영양학(NUTRITION DIETETICS), 의료보건서비스학(HEALTH CARE SCIENCES SERVICES), 의학정보학(MEDICAL INFORMATICS), 종양학(ONCOLOGY), 정신과학(PSYCHIATRY) 등 사실상 자연과학 분야로도 판단될 수 있는 학문 영역이 다수 분류되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이와 관련한 심화 연구 수행 시 FGI에서 제시된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조언과 함께 해외 학술 DB의 세부 주제 영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한국학은 지역학으로써의 성격과 함께 다른 학문 분야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 특성 때문에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의 정체성 모색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관련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국내외 한국학 분야 출판 자료의 현황 파악이나 한국학 분야의 주요 연구 성과 고찰 등을 통한 내용 분석 위주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계량서지학적인 방법을 적용해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에서 생산된 학술 논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적용해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를 체계화하고,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군집에 대한 내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 학술논문 데

이터를 대상으로 계층적 군집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장 하위 계층 군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군집은 전체적으로 3단계 계층 구조를 가진 30개(1, 2단계 계층의 군집 수까지 포함하면 33개)가,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군집은 4단계 계층 구조를 가진 25개(1, 2, 3단계 계층의 군집 수까지 포함하면 30개)가 도출되었다.

둘째,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군집이 포함하는 연구 분야 등의 내용을 식별하기 위한 명명 작업과 관련해, 연구자가 부여한 군집 명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FGI 결과, 대체로 적절하게 부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국내와 해외 지식 구조 모두 중심 연구 분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에서는 대체로 학문 분야 관점에서는 성리학과 실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 사상 철학과 문학 분야를 포함하는 군집들이, 시대적인 관점에서는 조선 후기에서 근대 시기에 대한 의견이 중심 분야로 다수 언급되었으며, 일부 의견으로는 지리적인 관점에서 분단 상황을 반영한 한반도와 북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경제나 민주화와 관련한 군집들이 대체로 중심 연구 분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에서는 한반도 분단 상태에 따른 남북한 관계나 정치 경제에 관련된 군집들이 중심 분야로 다수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 한류 관련 군집과 일부 보이는 유교문화권 관련 키워드도 중심이 될 것 같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넷째, 연구 분야의 학제적 특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국내와 해외 지식 구조 군집들 중 복합학문적인 학제적 특성, 혹

은 단일한 주제 분야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가 있다고 판단하느냐에 대한 질문 결과, 국내와 해외 모두 구체적인 답변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군집이 속할 수 있는 학문 분야를 복수 선택하도록 한 사전 질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 및 해외 지식 구조의 대다수 군집들이 평균 2개 이상의 학문 영역에 속했으며, 국내 지식 구조의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군집들이 '역사학', '철학', '국어학', '국문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 분야에 해당하고, 해외 지식 구조의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군집들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국내와 해외의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를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보인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대체적으로 국내 한국학 분야는 인문학 분야의 특징을, 해외 한국학 분야는 사회과학 분야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한국학 분야는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시대를 모두 아우르는 데 비해 해외 한국학 분야는 주로 근현대 시점 연구가 모여 있는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제공된 자료에서 포함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 분야의 범위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의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군집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일선 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 군집 분석 대상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본 연구자가 설정한 모집단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해외 데이터를 수집한 대상 DB를 인문학 및 사회과학 종류로 한정하였으나 사실

상 해당 DB들에서 포함하고 있는 세부 주제 분야들 중에 자연과학 분야로 판단될 수 있는 학문 영역이 다수 분류되어 있어 추후 관련 연구 수행 시 해당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해외 한국학 분야 학술 논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량서지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해 한국학의 지식 구조를 도출해 보고, 한국학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종합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해 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국학 분야의 경우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성숙되지 못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적용·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에 한국학 분야에 축적되어 있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함께 한국학의 연구 분야 범주를 더욱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정체성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학 분야 자료들에 대한 통계 분석, 시각화 기법 등의 실증적인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진다면, 한국학의 정체성을 찾고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국내외 한국학 연구 지원 정책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한국학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 있어 국내 및 해외 한국학의 기준을 수집 대상 DB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두고 진행하였고, 군집 분석 결과의 이해를 위한 정성적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소수(9명)의 전문가들로 한정해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에 국내외 해외 한국학 분야를 같은 눈높이에서 비교하는 작업이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수집 과정 단계부터 국내외 많은 한국학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비롯해, 통상적으로 한국학에서 기준으로 삼는 시대별, 학문 분야별 관점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심화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강성위. 1980. 한국학의 개념과 논리의 문제들. 『정신문화연구』, 3(3): 32-38.
- [2] 고영만, 송인석. 2011. 연구문헌의 지식구조를 반영하는 의미기반의 지식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1): 145-170.
- [3] 박철완. 2000. 이용자 지식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발표논집』, 3: 5-15.
- [4] 김경일. 2003.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4: 129-165.
- [5] 김민. 2009. 한국 청소년학의 지적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2): 223-256.
- [6] 김석득. 1983. 프랑스에서의 한국학과 언어학 연구의 흐름. 『동방학지』, 39: 253-258.
- [7] 김승환. 2010. 한국학의 갈래와 개념. 『배달말』, 47: 283-307.

- [8] 김윤태. 2006. 중국의 한국학 연구 동향. 『중국연구』, 38: 77-91.
- [9] 김종명. 2006. 국내의 “해외한국학” 교육: 현황·과제·방향. 『아태연구』, 13(1): 105-128.
- [10]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11] 박영신. 1983. 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 영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 『동방학지』, 39: 247-252.
- [12] 박이문. 2006. 학문으로서의 한국학의 개념과 방법론 및 지표. 『동아시아문화연구』, 40: 5-15.
- [13] 박정신. 1999. 미국에서의 한국학동향. 『인문과학연구』, 18: 23-32.
- [14] 박지연, 정동열. 2013. 저자서지결합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31-59.
- [15] 서은경. 1992. 정보검색분야의 지적 구조와 변화에 관한 연구: 영어문화권 저자들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9(1): 55-82.
- [16] 송민선, 고영만. 2015. 국내 한국학 분야의 연구 영역 식별을 위한 거시적 지식구조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3): 221-236.
- [17] 송현호. 2012. 중국 지역의 한국학 현황. 『한중인문학연구』, 35: 463-504.
- [18] 심의림. 1990.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아시아문화』, 6: 191-207.
- [19] 심재후, 최명길. 2013. 창업학 지식구조 분석결과를 활용한 창업 온톨로지 구축.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0(2): 161-176.
- [20] 오가레크 최. 1990. 폴란드에서의 한국학연구 현황. 『아시아문화』, 6: 209-212.
- [21]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379-408.
- [22] 유영준. 2003. 문헌정보학의 지식 구조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3): 277-298.
- [23] 윤구호, 서말숙. 2001. 저자동시 인용분석에 의한 1990년대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169-197.
- [24] 이병도. 2003. 태국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 『한국국제지역학보』, 2: 173-193.
- [25] 이정희. 2011. 예산이론 연구프로그램의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 115-148.
- [26] 이재운, 김희전, 유종덕. 2010. 저자프로파일링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국내 주거학 분야의 지적 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285-308.
- [27] 임현진, 정일준. 2012. 사회학에서의 한국학 연구동향: 한국학의 세계화 전략 모색. 『한국학연구』, 43: 461-494.
- [28] 전범수, 한상권. 2007. 한국 언론학 연구의 지식생산 연결망 구조. 『한국언론학보』, 51(5): 197-215.
- [29] 전성운. 2010. 한국학의 개념과 세계화의 방안. 『한국학연구』, 32: 317-337.
- [30] 정영미. 1997. 『지식구조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31] 조태린. 2013. 국외 한국학 관련 커리큘럼 분석: 프랑스 주요 대학의 한국학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3: 239-259.
- [32] 최기숙. 2011. 1950-1960년대 인문학 학회지에서의 한국학 연구 구성의 특징: 개념·범주·방법론. 『열상고전연구』, 33: 265-301.
- [33] 함동주. 2001.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동향과 한국인식. 『이화사학연구』, 28: 197-215.
- [34] 허고은, 송민. 2013. 저자동시인용 분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이용한 의료정보학 저널의 지적구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2): 207-225.
- [35] 황패강. 1982.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신문화』, 14: 89-102.
- [36] 황희영. 1978. 나라 밖 한국학 개황. 『나라사랑』, 29: 182-233.
- [37] Åström, F. 2007. "Changes in the LIS Research Front: Time-Sliced Cocitation Analysis of LIS Journal Articles, 1990-2004."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7): 947-957.
- [38] Farradane, J. E. L. 1950. "A Scientific Theory of Classification and Indexing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s." *Journal of Documentation*, 6(2): 83-99.
- [39] Janssen, F. et al. 2006. "Towards Mapp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2(6): 1614-1642.
- [40] De Moya Anegón, F. et al. 1998. "Research Fro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Spain (1985-1994)." *Scientometrics*, 42(2): 229-246.
- [41] Small, H. G. 1976. "Structural Dynamics of Scientific Literatur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3(2): 67-74.
- [42] White, H. D. and McCain, K. W. 1998. "Visualizing a Discipline: An Author Co-Citation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1972-1995."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9(4): 327-155.
- [43] Zhao, D. and Strotmann, A. 2008. "Evolution of Research Activities and Intellectual Influences in Information Science 1996-2005: Introducing Author Bibliographic-Coupling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13): 2070-208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Sung Wi. 1980. "Concepts and Logic of the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Quarterly*, 3(3): 32-38.
- [2] Ko, Young Man and Song, Inseok. 2011. "A Study on the Knowledge Organizing System

- of Research Papers Based on Semantic Relation of the Knowledge Struc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1): 145-170.
- [3] Kwak, Chul-Wan. 2000. “A Study on the Structure of User’s Knowledge.” In *Proceeding of Korean Biblia Society*, 3: 5-15.
- [4] Kim, Kyung Il. 2003. “The Origin and Genealogy of Korean Studies: Korea, East Asia, and America.” *Society and History*, 64: 129-165.
- [5] Kim, Min. 2009.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Youthology in Korea.” *Studies on Korean Youth*, 20(2): 223-256.
- [6] Kim, SukDeug. 1983. “The Koreanology and Linguistics in France.” *The Dong Bang Hak Chi*, 39: 253-258.
- [7] Kim, Seung Hwan. 2010.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47: 283-307.
- [8] Kim, Yun Tae. 2006. “The Recent Trends of Korean Studies in China.” *Journal of Sinology and China Studies*, 38: 77-91.
- [9] Kim, Jong Myung. 2006. “Education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in Korea: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13(1): 105-128.
- [10] Kim, Hee-Jung.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07-224.
- [11] Park, Yong Shin. 1983. “A Note on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Kingdom.” *The Dong Bang Hak Chi*, 39: 247-252.
- [12] Park, I Mun. 2006. “The Conception of Koreanology as a Science, and Its Methodology and the Direction.” *Journal of East Asian Cultures*, 40: 5-15.
- [13] Park, Jung Shin. 1999. “The Trends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Sungshin Humanaties Research*, 18: 23-32.
- [14] Park, Ji Yeon and Jeong, Dong Youl. 2013.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31-59.
- [15] Seo, Eun-Gyoung. 1992. “Research Patterns of Information Retrieval in Information Science: the Changing Structure Across a Decad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9(1): 55-82.
- [16] Song, Min Sun and Ko, Young Man. 2015. “A Study on the Macro Analysis of Knowledge Structure of the Domestic Korean Studies for Identifying the Research Fields.” *Journal of*

-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221-236.
- [17] Song, Hyun Ho. 2012. "General Information of Korean Studies in China." *Studies of Chinese & Korean Humanities*, 35: 463-504.
- [18] Shen, Yi Lin. 1990. "Trends of Korean Studies in China." *Asia Culture*, 6: 191-207.
- [19] Shim, Jaehu and Choi, Myeonggil. 2013. "An Establishment of Entrepreneurship Ontology through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0(2): 161-176.
- [20] Czoj, Ogarek. 1990. "The Trends of Korean Studies in Poland." *Asia Culture*, 6: 209-212.
- [21] Oh, Se-Hoon. 200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Journal Articles and the Cited Literature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379-408.
- [22] Yoo, Yeongjun. 2003.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3): 277-298.
- [23] Yoon, Koo-ho and Seo, Mal-Sook. 2001. "Intellectual Structure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1990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3): 169-197.
- [24] Lee, Byung Do. 2003. "Current Status and Research Problem of Korean Studies in Thailand." *Korean Review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2: 173-193.
- [25] Lee, Jung Hee. 2011. "An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of Theoretical Research Programs on Budget Theory."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1(3): 115-148.
- [26] Lee, Jae Yun, Kim, Hee-Jeon and Ryoo, Jong-Duk. 2010.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Housing Studies in Korea with Text Mining and Factor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285-308.
- [27] Lin, Hyun-Chin and Chung, Il-Joon. 2012. "Korean Studies in Sociology: In Search of a Strategy for Globalizing Korean Studies." *Journal of Korean Studies*, 43: 461-494.
- [28] Chon, Bum Soo and Han, Sang Kwon. 2007. "Citation Networks in Korean Communication Journal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1(5): 197-215.
- [29] Chun, Sung Woon. 2010. "The Conception of Korean Study and Its Ways of Globaliza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32: 317-337.
- [30] Jung, Young Mee. 1997. *Knowledge Structure Theory*.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31] Cho, Tae Rin. 2013. "An Analysis on Curricular of Korean Studies Abroad: With a Focus on Korean Studies Curricular of Several Major Universities in France." *The Dong Bang Hak Chi*, 163: 239-259.

- [32] Choi, Key Sook. 2011.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Studies and the Research Vision of the Dept. of College of Humanities in Korean Universities During 1950~1960's: Concept · Category · Methodology - Focusing on the Academic Journals." *Yeol-Sang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33: 265-301.
- [33] Ham, Dong Ju. 2001. "Korean Studies Trends and Awareness about Korea in Japan." *Ewha Sahak Yeongu*, 28: 197-215.
- [34] Heo, Go Eun and Song, Min. 2013.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a Medical Informatics Journal with Author Co-Citation Analysis and Co-Word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207-225.
- [35] Whang, Pae Gang. 1982. "Trends and Challenges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Quarterly*, 14: 89-102.
- [36] Hwang, Hee Young. 1978. "Korean Studies Overview in Overseas." *Nara Sarang*, 29: 182-233.

[부록 1] 국내 한국학 분야 학술 논문 저자키워드 군집 분석 결과표

1단계 군집	2단계 군집	3단계 군집
K.C.1		기사/독서/사대부/사실성/서사/안석경/야담/역사의식/오주연문장전산고/의론/이규경/일화/전/패설/필기
K.C.2	K.C.2.1	퇴계/성/기/자연/도/주희/장자/노자/경/인/대학/중용/순자/공자/음양/군자/성인/율곡/신/정/무위/논어/생명/리/17세기/예/태극/중화/덕/심/역학/귀신/성호/서/주자/지성/의/천도/악/심성론/이학/천리/관용/수양/성정/상제/의리/영혼/선비/수양론/도연명/천/규범/소식/위기지학/현실/수기치인/한강/남명/합리성/심성/서사원/본체론/무/양생/풍수지리/학문관/유교윤리/생성/인도/정신/지각/음양오행/중/우주론/낙재
	K.C.2.2	정약용/정조/영조/주역/이규보/노론/다산/사족/소론/서인/18세기/자유의지/남인/화이론/동아일보/성호학과/박은식/한원진/유형원/1920년대/환관/자연주의/성혜응/숙종/탕평/안정복/산수시/자연시/현실인식/낙론/무신란/궁방/군사/도통론
	K.C.2.3	주자가례/의례/풍수/예학/종법/가례/제사/일상/상례/조화/시경/조선전기/국조오례의/유가/제례/예치/묘제/부/공신/왕실/열녀전
	K.C.2.4	성리학/실학/주자학/이황/송시열/경학/도학/서원/양명학/소학/퇴계 이황/이이/이색/정구/심학/다산 정약용/실천/김시습/서학/사림/정도전/조식/도통/퇴계학/영남학과/공론/향약/의병/격물치지/성호 이익/퇴계학과/중화주의/장현광/기억/사립과/절의/김중직/경세론/언해/김창협/위정척사/당쟁/역사/가학/기호학과/김굉필/낙중학/산림/위백규/화이관/함경도/리발/사단칠정/남명학과/조광조/과거제/예론/훈구과/장지연/허목/박세채/이기론/민/기발/교화/주리/사화/예송/환상성/자연관/타카하시 토오루
	K.C.2.5	박지원/김정희/유득공/산문/홍대용/열하일기/이덕무/고문/미의식/고증학/박제가/이서구/허균/연암/유몽인/역사소설/명덕/홍경모/고운당필기/김창숙/심즉리/곽종석/허유/홍양호
	K.C.2.6	최한기/기학/문화/신기/추측
K.C.3	진/군역/산수화/의괘/정선/조선후기/지방제정/고려/두만강/명/명분/미학/박세당/북경/사행/서유구/성종/성호사설/세조/세종/약장/안중근/역관/왜구/요동/유서/유희/이성계/이수광/이익/일본/임원경제지/조선/조선왕조실록/조선총독부/지봉유설/청일전쟁/한반도/공민왕/대간/복두칠성/원/의료/질병/광해군/대동법/동학농민전쟁/병자호란/선조/연행/연행록/인조/인조반정/임진왜란/조천록/책봉/통신사/교류/한문교육/한자/한자교육/한자어/사대/승정원일기/어휘사/일본서기/한문문체/아악/예악/풍속/향악/원효/의상/의적/최치원/의미/자살	
K.C.4	사/신의/연기/원형/충/효/가부장제/가족/가족주의/기독교/도교/불교/유교/유학/정감록/과거/노동/동양사상/소외/여가/현대성	
K.C.5	K.C.5.1	정체성/욕망/근대/주체/타자/윤리/존재/죽음/칸트/예술/선/인식/자유/주체성/이성/도덕/언어/정의/마음/공/자아/인권/재현/타자성/개성/이미지/낭만주의/의식/헤겔/상상력/진리/개인주의/권력/레비나스/경성제국대학/비트겐슈타인/유토피아/귀환/시민사회/차이/행복/동화/고정희/철학/형이상학/신체/아나키즘/조선족/여성성/인식론/의지/세계/틀뢰즈/하이데거/수사학/책임/국민국가/존재론/시/사랑/재생/직관/공리주의/법/패러다임/내면/의사소통/신앙/에로스/미/설화/지역공동체/공산주의/참자아/무의식/변영만
	K.C.5.2	경험/극장/1930년대/다양성
	K.C.5.3	번역/근대성/이광수/전통/문체/계몽/최남선/맹자/제국주의/민중/오리엔탈리즘/한문/분단/비교문학/친일/영웅/판소리/훈민정음/염상섭/사회진화론/페미니즘/필사본/반공주의/김소월/문학성/독자/대중성/전쟁/신소설/세계문학/김수영/근대계몽기/1950년대/번안/전기/김억/이본/문화정치/한글/방각본/텍스트/비평/민족문학/카프/중역/주석/이인직/조선어/삼대/루쉰/방법론/량치차오/작가/세계관

1단계 군집	2단계 군집	3단계 군집	
K.C.5	K.C.5.4	K.C.5.4.1	3.1운동 / 동학 / 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 역사인식 / 천도교 / 민족운동 / 계몽운동 / 유물사관 / 집단주의 / 계몽우
		K.C.5.4.2	아리랑 / 디아스포라 / 개벽 / 매체 / 한 / 지역성 / 정전 / 민요 / 이주 / 저항 / 잡지 / 이별 / 민족성 / 한민족공동체
		K.C.5.4.3	민족 / 국가 / 경계 / 식민지 / 자본주의 / 개인 / 국민 / 대중 / 초월 / 미디어 / 식민주의 / 공감 / 기호 / 주권 / 탈식민주의 / 인민 / 제국 / 풍경 / 섹슈얼리티 / 혼종성 / 아시아 / 진보 / 동양 / 청년
		K.C.5.4.4	문화 / 사회주의 / 공동체 / 여성 / 검열 / 대중문화 / 문명 / 만주 / 정치 / 표상 / 담론 / 조선학 / 방언 / 제도 / 소설 / 폭력 / 상인 / 풍류 / 정보 / 실용성 / 대중화
		K.C.5.4.5	냉전 / 내선일체 / 리얼리즘 / 입화 / 문화산업 / 국민문학 / 예술성
		K.C.5.4.6	모더니즘 / 정치용 / 이상 / 파시즘
		K.C.5.4.7	양계초 / 비변사
	K.C.5.5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주의 / 다문화사회 / 일상생활 / 갈등 / 접촉시대	
	K.C.5.6	근대화 / 고종 / 대한제국 / 기생 / 신여성 / 식민지 조선 / 한용운 / 독립신문 / 대원군 / 유교문화 / 박정희 / 대구 / 새마을운동 / 삼국지 / 도시화 / 갑신정변	
	K.C.5.7	민족주의 / 동아시아 / 한국학 / 세계화 / 인문학 / 공간 / 국학 / 인간 / 한국어 / 신자유주의 / 로컬리티 / 포스트모더니즘 / 통섭 / 교양 / 과학주의 / 분단체제 / 로컬 / 사머니즘 / 한국철학	
K.C.5.8	교육 / 공공성 / 민주주의 / 소통 / 플라톤 / 이승만 / 김구 / 사회인문학 / 사회통합 / 동원 / 아리스토텔레스 / 통일 / 하버마스 / 공화주의 / 국가건설 / 해방기 / 해방 / 차별 / 사회성 / 평화 / 지식		
K.C.5.9	환상 / 홍길주 / 해체		
K.C.6	6.25전쟁 / 6자회담 / 개방 / 개성공단 / 개혁 / 과학 / 과학기술 / 국가주의 / 기술 / 김일성 / 김정은 / 김정일 / 남북관계 / 대북정책 / 미국 / 민족문화 / 민주화 / 보편성 / 북미관계 / 북한 / 북한경제 / 북핵문제 / 소련 / 수령 / 시장경제 / 시장화 / 종교 / 주체사상 / 중국 / 특수성 / 한국 / 한국전쟁 / 향가 / 7.1조치 / 경제개혁 / 선군정치 / 시장 / 이데올로기 / 개작 / 근대문학 / 관광 / 문화교류 / 비교 / 세계문화유산 / 조선시대 / 한류 / 러시아 / 북한 인권 / 자율성 / 전기소설 / 트라우마		
K.C.7	가사 / 고문서 / 네트워크 / 노비 / 목판 / 문중 / 문집 / 본관 / 승려 / 시조 / 신분 / 안동 / 양반 / 영남 / 족보 / 중인 / 지방관 / 직역 / 책판 / 친족 / 향리 / 호 / 호적 / 호적대장 / 고려사 / 고려시대 / 묘지명 / 의천 / 호족 / 관습 / 도시 / 명문 / 묘사 / 춘향전 / 문과 / 범주 / 사전		
K.C.8	감성 / 감정 / 이태준 / 정서 / 교유 / 구원 / 애도 / 유람		
K.C.9	경연 / 궁궐 / 문학 / 사상 / 일상성 / 글쓰기 / 동문선 / 유길준 / 풍자 / 한유 / 형식 / 왕권		
K.C.10	경주 / 고구려 / 고인돌 / 고조선 / 교과서 / 교육과정 / 기자조선 / 낙랑군 / 단군 / 단군민족주의 / 단군신화 / 동북공정 / 문화콘텐츠 / 민족정체성 / 백제 / 부여 / 사기 / 삼국사기 / 삼국유사 / 서거정 / 서정주 / 스토리텔링 / 신라 / 신시 / 신채호 / 신화 / 여행 / 역사교육 / 은유 / 이승휴 / 일연 / 제왕운기 / 조선왕조 / 진한 / 평양 / 한국 민족주의 / 한민족 / 한사군 / 홍산문화 / 홍익인간 / 환웅 / 국어 / 알레고리 / 한시 / 상징 / 제 / 제화시 / 형상화 / 인정 / 잡채시		
K.C.11	오구굿		

[부록 2] 해외 한국학 분야 학술 논문 저자키워드 군집 분석 결과표

1단계 군집	2단계 군집	3단계 군집	4단계 군집
F.C.1	F.C.1.1	F.C.1.1.1	F.C.1.1.1.1 ACADEMIC ACHIEVEMENT / CLIMATE CHANGE / HEALTH / MEASUREMENT / SIMULATION
			F.C.1.1.1.2 ASIA / AUSTRALIA / CHINA / CIVIL SOCIETY / COLONIALISM / CONFUCIANISM / CULTURE / DEVELOPMENT / DISCRIMINATION / EAST ASIA / EDUCATION / FAMILY / FOREIGN DIRECT INVESTMENT / GLOBALISATION / HONG KONG / INDIA / INNOVATION / JAPAN / MORTALITY / NATIONAL IDENTITY / PERFORMANCE / POLICY / POLITICAL ECONOMY / SINGAPORE / SOCIOECONOMIC STATUS / SUICIDE / TAIWAN / TRADE / UNITED STATES / USA
			F.C.1.1.1.3 ATTITUDES / COLLECTIVISM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ROSS-CULTURAL RESEARCH / CROSS-CULTURAL STUDY / GENDER / MOTIVATION / PARENTING / PERCEPTION / RELIGION / SEOUL / SOCIAL CAPITAL / SOCIAL NETWORKS / TRUST / UNITED STATES OF AMERICA / WELL-BEING
			F.C.1.1.1.4 CHAEBOL / DEMOCRACY / ECONOMIC DEVELOPMENT / GLOBALIZATION / GOVERNANCE / POVERTY / POWER / TECHNOLOGY
			F.C.1.1.1.5 DEMOCRATIZATION / DEVELOPMENTAL STATE / ECONOMIC CRISIS / FINANCIAL CRISIS / HIGHER EDUCATION / IDENTITY / INTERNATIONAL STUDENTS / MEDIA / MIGRATION / MODERNITY / MULTICULTURALISM / NATIONALISM / NEOLIBERALISM / PRODUCTIVITY / SUSTAINABILITY / TRANSNATIONALISM
			F.C.1.1.1.6 INTERNET / NETWORK ANALYSIS / SOCIAL NETWORK ANALYSIS / WEBOMETRICS
			F.C.1.1.1.7 JOB SATISFAC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F.C.1.1.2 ADAPTATION / CUSTOMER SATISFACTION / DATA ENVELOPMENT ANALYSIS / GENDER DIFFERENCES / KNOWLEDGE MANAGEMENT / OLDER ADULTS / R&D / SERVICE QUALITY / STRUCTURAL EQUATION MODEL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UPPLY CHAIN MANAGEMENT / WILLINGNESS TO PAY
	F.C.1.2 ASIAN FINANCIAL CRISIS / BUSINESS GROUP / BUSINESS GROUPS / CORPORATE GOVERNANCE / EMERGING MARKETS / FIRM PERFORMANCE / INFORMATION ASYMMETRY / VOLATILITY		
	F.C.1.3 CAUSALITY / COINTEGRATION / ECONOMIC GROWTH		
	F.C.1.4 FOREIGN POLICY / HUMAN RIGHTS / KOREA / KOREAN PENINSULA / KOREAN WAR / NORTH KOREA / NORTHEAST ASIA / NUCLEAR WEAPONS / REGIONALISM / REPUBLIC OF KOREA / RUSSIA / SECURITY / SIX-PARTY TALKS / SOUTH KOREA		
	F.C.1.5 HALLYU / KOREAN WAVE		

1단계 군집	2단계 군집	3단계 군집	4단계 군집
F.C.2			ACCULTURATION / AGE / ASIAN / ASIAN AMERICAN / ASIAN AMERICANS / BREAST CANCER / CERVICAL CANCER / CHINESE / HEALTH PROMOTION / IMMIGRANTS / JAPANESE / KOREAN / KOREAN AMERICAN / KOREAN AMERICANS / KOREAN WOMEN / KOREANS / SCREENING / VALIDATION / WOMEN'S HEALTH
F.C.3	F.C.3.1	F.C.3.1.1	ADHD / ADOPTION / BODY MASS INDEX / CHILDREN / OBESITY / SCHIZOPHRENIA
		F.C.3.1.2	ADOLESCENCE / ADOLESCENT / ADOLESCENTS / AGED / AGING / ANXIETY / CHILD / COMMUNITY / COMORBIDITY / CROSS-CULTURAL / DEPRESSION / DEPRESSIVE SYMPTOMS / DIABETES / ELDERLY / EPIDEMIOLOGY / ETHNICITY / GENDER DIFFERENCE /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INTERNET ADDICTION / KOREAN IMMIGRANTS / LIFE SATISFACTION / MENTAL HEALTH / METABOLIC SYNDROME / PAIN / PERSONALITY / PREVALENCE / QUALITY OF LIFE / QUESTIONNAIRE / RESILIENCE / RISK FACTORS / SELF-EFFICACY / SELF-ESTEEM / SLEEP / SMOKING / SOCIAL SUPPORT / STRESS / STROKE / SUICIDAL IDEATION / UNCERTAINTY
		F.C.3.1.3	CANCER / DECISION MAKING / ONCOLOGY
		F.C.3.1.4	CHRONIC DISEASE / COGNITION / EXERCISE / HEALTH STATUS / HYPERTENSION / IMMIGRANT / PHYSICAL ACTIVITY / SATISFACTION / WOMEN
	F.C.3.2		ALZHEIMER'S DISEASE / DEMENTIA / LONG-TERM CARE / NURSE / NURSES / NURSING / OLDER PEOPLE / QUALITATIVE RESEARCH / REHABILITATION / RISK
	F.C.3.3		BUDDHISM
F.C.3.4		ENGLISH / IMMIGRATION	
F.C.3.5		HEALTH BEHAVIOR / RISK FACTOR	
F.C.4			ATTITUDE / KNOWLEDGE / SURVEY
F.C.5			CONJOINT ANALYSIS
F.C.6			EMOTION
F.C.7			FACTOR ANALYSIS / RELIABILITY / VALIDITY

[부록 3]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1단계 군집	2단계 군집	3단계 군집	
K.C.1(한국의 산문 문학 및 서사학)			
K.C.2(한국 사상 철학)	K.C.2.1(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사상철학)		
	K.C.2.2(조선 후기 사회, 정치 및 실학 + 1920-30년대 문학 및 사회사)		
	K.C.2.3(주자학 및 예학)		
	K.C.2.4(조선시대 성리학과 실학에서 파생된 각종 학파 및 정치 세력 집단과 관련한 사회문화사상)		
	K.C.2.5(조선 후기 실학 관련 인물 및 의식)		
	K.C.2.6(기학)		
K.C.3(고려~조선 시대 정치, 문화, 외교 활동 + 한자(교육)학)			
K.C.4(동양 및 한국의 주요 사상과 제도의 변화)			
K.C.5(격변기 및 근현대 한국과 관련한 사회상과 문화, 이데올로기)	K.C.5.1(근현대 한국 사회에서 주목하는 철학적, 문학적 담론 및 사상)		
	K.C.5.2(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 근현대 문화사상)		
	K.C.5.3(근대 문학에 나타나는 문체적 특징과 사회상의 반영)		
	K.C.5.4(민족성, 민족의식, 대중문화 및 사상, 이데올로기)	K.C.5.4.1(일제 시대 민족 의식)	
		K.C.5.4.2(민족성 관련 매체, 정서)	
		K.C.5.4.3(식민기-탈식민기(해방기)의 민족적 이념, 정서, 문화적 관념)	
		K.C.5.4.4(대중문화, 사상 및 담론)	
		K.C.5.4.5(문학, 영화, 연극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매체)	
		K.C.5.4.6(근현대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K.C.5.4.7(비변사와 관련된 정치 상황 + 양계초의 사상론)	
	K.C.5.5(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이주자를 포함한 다문화사회 현상)		
	K.C.5.6(주요 사회 변화 시기(감신정변, 근대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변화)		
	K.C.5.7(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융합적인 성격의 인문학)		
K.C.5.8(해방 후 통일 민주국가 건설 과정을 겪은 근현대기 한국의 사회인문학과 정치철학)			
K.C.5.9(홍길주를 비롯한 특정 문학 작품들에서 보이는 서사적 특징)			
K.C.6(한국전쟁에서 비롯된 남북관계와 세계 주요국과의 정치적, 문화적 관계 발전에 관한 연구,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K.C.7(고문헌 및 문서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 + 호적과 족보를 이용한 지역 사회 연구)			
K.C.8(다양한 사회문화현상을 통해 본 감정과 정서 연구)			
K.C.9(글쓰기와 문학 작품의 형식적 문체적 특성 연구, 경연과 왕권 연구)			
K.C.10(한국 고대사)			
K.C.11(오구굿)			

[부록 4]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1단계 군집	2단계 군집	3단계 군집	4단계 군집
F.C.1(한국 사회의 발전 및 변화, 한반도의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현상)	F.C.1.1(정치, 경제, 사회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 분야)	F.C.1.1.1(정치, 경제, 사회학)	F.C.1.1.1.1(학업성취도 비교 + 환경 변화 및 건강 관리)
			F.C.1.1.1.2(정치, 경제 윤리 분야 측면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비교)
			F.C.1.1.1.3(사회학 관점에서의 문화 비교)
			F.C.1.1.1.4(세계화 경제화, 민주화 관련 경제 발전)
			F.C.1.1.1.5(경제 위기 등에 따른 다양한 사회 사상 및 변화 태도)
			F.C.1.1.1.6(인터넷 정보 및 다양한 계량 정보 분석)
			F.C.1.1.1.7(직업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
			F.C.1.1.2(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품질 및 만족도 조사-집단 차이 및 구조방정식 모델 등의 연구방법 활용-)
	F.C.1.2(한국 금융 및 산업 분야)		
	F.C.1.3(경제 성장)		
F.C.1.4(한반도 내 對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국가명 '한국'을 주제로 포함하는 다른 분야 연구들도 다수 포함된 군집))			
F.C.1.5(한류)			
F.C.2(한국계 미국인, 한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인의 문화적 변화 현상 연구, 건강 관리 비교 연구)			
F.C.3(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황)	F.C.3.1(신체적, 심리적 상태)		F.C.3.1.1(비만 및 체질량 관련 연구, 정신질환)
			F.C.3.1.2(심리적 불안, 정신 건강, 우울증과 삶의 질)
			F.C.3.1.3(한국 내 중양학(암) 환자 대상 연구)
			F.C.3.1.4(일상적인 건강 관리, 만성질환 및 운동)
	F.C.3.2(장기 요양, 간호)		
	F.C.3.3(불교)		
F.C.3.4(이민자와 언어 학습)			
F.C.3.5(건강 행동과 건강 위험 요인)			
F.C.4(간호학, 민속학, 문화비교학 등 주로 복합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태도나 생각)			
F.C.5(소비자학, 신문방송학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컨조인트 분석)			
F.C.6(감정, 정서 연구)			
F.C.7(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요인분석, 신뢰성, 타당성 측정)			

